

# 다니엘서 - 제86번

예언적 드러남: 지식의 증가와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에 대한 이해

Jeff Pippenger

2024-02-19

우리는 종말의 때에 봉인이 풀릴 때 '지식의 증가'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첫째와 셋째 천사의 운동 사이의 대응 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늦은비, 즉 밤중의 외침의 기별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진리의 고조를 가리킨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 상징으로서 '지식의 증가'는 다니엘서에서 유래하며, 거기에서 경배자들을 두 부류로 시험하고 산출하는 예언적 지식으로 규정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1989년에 결국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드러내게 될 "지식의 증가"가 봉인이 풀렸다. 그 두 부류는 늦은 비의 기별과 맺는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악한 자들은 늦은 비를 알아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그렇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를 보지 못하며, 그 늦은 비는 2001년 9월 11일 열방이 분노했을 때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에스겔 8장과 9장, 그리고 이사야 28장에 묘사된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운동 지도부를 다루어 왔다. 이사야에서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겼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이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계약을 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숨었다' 하였음이라. 이사야 28:14, 15.

말세의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으로 나타나는 '안식과 새롭게 함'의 시험에 실패하였다. 이 방법론은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늦은 비에 대한 역사적 예증을 통해 지혜로운 자들이 말세의 늦은 비를 알아보게 한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조롱하는 자들'의 예언적 특징은, 그들이 숨고 피난처로 삼은 거짓과 허위이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기별(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안식과 새롭게 함')의 시험과 관련하여, 말세의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거짓을 받아들였다.

늦은 비의 메시지는 논쟁을 동반해 오는데, 하박국 2장에 나타나듯 그곳에서 파수꾼은 자신의 역사에서 벌어지는 '논쟁' 속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다. 이는 2장 1절의 '책망받다'라는 단어가 '논쟁을 벌이다'를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박국 2:1.

늦은 비에 관한 논쟁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밀러의 보석들로 상징되는 진리들, 곧 밀러파가 식별하고 확립하며 제시한 기초적 진리들을 제시한다. 그 진리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상징된다.

시온의 성벽 위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 있는 이들은 백성 앞에 놓인 위험을 볼 수 있고, 진리와 오류,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경고가 이르렀습니다. 1842년, 1843년, 1844년에 그 기별이 이르렀을 때부터 우리가 세워 온 믿음의 기초를 흔들려 놓을 그 어떤 것도 들어오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충실하게 세상 앞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주를 찾으며 빛을 구하던 가운데 우리의 발이 놓이게 된 그 기초 위에서 발을 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영원한 반석과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때부터 줄곧 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Review and Herald, April 14, 1903.

장로들은 이사가가 '거짓'과 허위라고 표현한 거짓 늦은 비 기별을 제시한다. 에스겔 8장에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태양에게 절하는 때를 밝혀 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과 대조된다. 세 번째 가증한 일(세대)은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것'으로 표상된 거짓 늦은 비 기별을 나타낸다. 1919년에 시작된 재림운동의 제3세대에서, 1919년 성경회의에서 W. W. Prescott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거짓 복음과 관련하여 '거짓'이 도입되었다. 그 '거짓'은 제3세대의 특정한 주제이며, 그 '거짓'은 '담무스를 위하여 우는 것'으로 표상된 거짓 늦은 비 기별의 거짓된 기초이다.

예언 속의 "거짓"을 정확히 밝혀내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거짓"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1989년의 지식의 증가를 보지 못하는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서 "the daily"가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으로 예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짓되고 잘못된 예언적 적용이다. 그러나 그 "거짓"은 단지 "the daily"를 예언적 상징으로 잘못 규정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자매가 그 잘못된 적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거짓"을 의미하며, 그 허위를 이용해 그 잘못된 적용을 확정된 진리로 삼는 것까지 포함한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30절부터 36절에 의해 예표되어 왔으며,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 11장의 완전한 성취를 지적하면서 30절부터 36절에 '묘사된 것들과 유사한 장면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the daily"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사용하면 잘못된 역사적 구조가 형성된다.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36절에 제시된 역사에는 "the daily"가 제거되는 일이 포함된다. "the daily"에 대한 적용은 밀러파의 적용이거나 프레스콧과 대니얼스의 적용 둘 중 하나다. 어느 적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역사적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요새 같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 11:31.

영감에 따르면, 이 절에 제시된 예언적 역사, 곧 30절과 32절부터 36절까지를 포함하는 그 역사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에서 반복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그 완전한 성취에 거의 이르렀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30절에는 '근심하게 될' 한 세력이 언급되어 있으며, [다니엘서 11장 30-36절 인용.]

"이 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벌어질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번호 13, 394.

"the daily"가 나오는 절은 31절이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요새 같은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다니엘서 11:31.

그 구절의 "군대"는 "그의 편"에서 일어난다. "군대"는 하나의 세력이며, 그들이 "일어서는" 대상 또한 하나의 세력이다. 그 구절에서 "그의 편에 선다"고 한 것도 "군대"이고, "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도 "군대"이며, "매일의 것을 제거"하는 것도 "군대"이고, 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도 "군대"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 곧 이교 로마는 교황권에 세 가지를 제공한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2.

표범 같은 짐승은 화이트 자매가 교황권으로 지목하며, 12장에서 화이트 자매는 용이 사탄일 뿐만 아니라 이교 로마이기도 하다고 지목한다.

"그러므로 그 용은 일차적으로 사탄을 나타내지만, 이차적인 의미에서는 이교 로마의 상징이다." — 『각 시대의 대쟁투』, 439.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이교 로마는 496년에 프랑크족(프랑스)의 왕 클로비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군사력, 곧 "무력"을 교황권에 넘겨주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떠나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330년에, 이교 로마는 교황 로마에 그 권좌를 내어주었다. 또한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칙령을 내려 교황권을 모든 교회의 수장이며 이단의 교정자로 규정했을 때, 이교 로마는 교황권에 세속 권위를 부여하였다.

31절에서 '일어서는' '무력'은 496년에 클로비스로부터 시작되어 교황권을 위해 일어섰던 이교 로마의 군사력을 가리킨다. 이 행위로 인해 교황권은 프랑스를 '가톨릭 교회의 장자'로, 때로는 '가톨릭 교회의 맏딸'로 규정한다. 31절에서, 콘스탄틴이 321년에 일요일 법을 제정하고 330년에 수도를 로마 시에서 콘스탄티노플 시로 옮긴 뒤, 한때 무적이던 제국은 붕괴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8장의 처음 네 나팔의 권세가 로마 제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야만인들과 쟂세릭이 수행한 공격의 초점은 로마 시를 향했는데, 그 도시는 330년 이전까지 로마 제국의 '견고한 성소'였다. 330년 이후로 침입하는 야만인들의 전쟁은 그 '견고한 성소'를 '더럽힐' 것이었고, 마침내 496년부터 이교 로마의 '무력'이 교황권을 위해 일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교 로마는 교황권에 군사력과 세속 권위, 그리고 로마 도시라는 본거지를 제공하여 세 가지지를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 로마를 위하여 세 뿔을 뽑기도 했다.

내가 그 뿔들을 생각하는 중에, 보라,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그 앞에서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뿔이 뿌리째 뽑혔다. 또 보라,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다. 다니엘 7:8.

다니엘서 7장에서 '뿌리째 뽑힐' 세 뿔은 교황권의 권력으로의 부상에 저항하던 세 가지 주요 세력을 나타냈다. 그 세 뿔 가운데 마지막 것은 538년에 고트족이 로마 시에서 쫓겨났을 때 제거되었다. 그들은 이교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 도시에서 쫓겨났는데, 그 '군사력'은 538년에 교황권(멸망의 가증한 것)을 당시 알려진 세계의 왕좌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은 "arms"(이교 로마)가 하게 될 네 가지 일을 밝힌다. 그들은 496년에 그랬던 것처럼 교황권을 위해 "일어설" 것이었다. 그들은 로마 도시를 무대로 대략 두 세기에 걸쳐 벌어진 군사적 투쟁으로 대표되듯이, "힘의 성소"를 더럽힐 것이었다. 그들은 538년에 교황권을 세상의 왕좌에 "세우고", 또한 "the daily"를 "제거"할 것이었다.

해당 구절에서 'take away'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sur)는 '제거하다'를 의미한다. 508년에 이르러 로마 제국 내에서 교황권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활동해 오던 이교 세력의 저항은 완전히 복속되거나 제거되었다.

'상번제'를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다. 그러나 그 잘못된 적용을 진리로 규정해 버린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재림주의의 세 번째 세대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거짓'에 근거해 있었다. 화잇 여사는 다니엘 11장의 최종 성취에서 30절부터 36절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로 인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은 동시에 예언의 신을 거절하지 않고서는 31절에 대한 해석을 제시할 수 없게 되었다.

'조롱하는 자들'은 교황권이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방한 가짜인 교황권의 미사를 도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에 대한 참된 이해를 빼앗아 갔다고 가르친다. 만약 이것이 'the daily'의 실제 의미라면, 31절에서 일어난 '무력'은 교황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절의 문장 구조가 그 '무력'이 'the daily'를 제거하는 권세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교황권(무력)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를 더럽혔다고 주장한다. '힘의 성소(miqdash)'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방의 성소이거나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킨다. 만일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소가 교황권에 의해 더럽혀질 것이라는 뜻을 전하고자 했다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성소만을 가리킬 수 있는 히브리어 'qodesh'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가 교황권에 의해 과거에 더럽혀졌거나 앞으로 더럽혀질 것이라고 성경이나 예언의 신 가운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하늘 성소의 기록책들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뜻은 아니다. 성소의 정결은 성소 안에 있는 기록책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 교황권은 결코 기독교적 세력이 아니었으므로, 조사심판의 기록책들에 단 한 번도 등재된 적이 없다. 교황권에 대해 명시된 유일한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집행 심판뿐이다.

또한 "군대"도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권세를 말하는가? 교황권은 어떤 권세를 세웠는가? 그리고 바로 31절의 첫 부분에서 교황권이 편에 섰던 그 권세는 무엇인가?

봉함된 책을 읽을 수 없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영생을 맡겨 버린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내의 무지한 자들은, 그런 종류의 왜곡된 성경 적용으로 귀가 가려움을 달래며 편안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지목해야 하는 역사를 끌어다가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과 맞추려는 시도는 더욱더 터무니없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남방왕으로 볼 수 있는 소련의 붕괴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성경 예언의 적그리스도와 비밀 동맹을 맺으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교황권의 편에 섰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황권의 부상에 대한 개신교의 어떠한 저항도 미국에서 제압되었음을 신호했는데, 이는 508년에 이교의 저항이 제거된 것으로 전형화된다. 그 본문에서 북방왕(교황권)은 먼저 1989년에 소련을 쓸어버렸고,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기병"과 협력해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배"로 표현된 미국의 경제력까지도 협력했다.

미국은 교황권을 위해 일어난 '무력'이었다. 프로테스탄트주의는, 508년까지 이교의 저항이 진압된 것처럼, 제거되었다. 41절에서 미국은 교황권에게 정복될 것이며, 미국의 '힘의 성소'인 미국 헌법은 미국이 538년에 이교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북방 왕(교황권)을 세상의 왕좌에 앉힐 때 뒤집혀질 것이다. 당신이 이 웹사이트의 글을 읽고 있다면, The Time of the End 잡지를 다운로드하여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단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상징의 잘못된 적용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잘못된 적용이 의도적인 거짓말에 의해 라오디게아적 재림교회에 가져와졌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예언적 거짓말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험난한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세상은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다. 머지않아 예언에서 말한 환난의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의 성취 가운데 일어난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삼십절에는 한 권세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가 분노하여 돌아와 거룩한 언약에 대하여 분개할 것이니, 그가 그렇게 행할 것이요; 다시 돌아와 거룩한 언약을 버린 자들과 밀약할 것이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언약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는 아침으로 부패시키려니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큰 일을 하리라. 백성 중에 깨닫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그들은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말미암아 여러 날 넘어지리라. 그들이 넘어질

때에 적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이들이 아침으로 그들에게 붙을 것이다. 또 그중 깨닫는 자 몇은 넘어져 그들을 시험하고 정결케 하며 희게 하려 하리니, 끝날 때까지니라. 이는 아직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 또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여 모든 신보다 스스로 크다 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이한 말을 하고,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정해진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0-36.

이 말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모두가 이 책의 예언을 읽고 이해하라. 우리는 지금 언급된 환난의 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생긴 이래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가 있으리라.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깨어나되,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수치와 영원한 멸시로 나아가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세세무궁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나 너는, 오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종말의 때까지 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다니엘 12:1-4. 원고 발표집, 13호, 394.